아리셀 희생자 가족, 오늘부터 추모객 맞는다…사측, 불법파견 숨기려는 '꼼수' 계속

조연주 기자 | 승인 2024.07.17 09:57

아리셀 중대재해 대책위 보도자료
사측, '백지 위임장' 들고와 "사인하라"
"위험의 이주화, 비정규직 함께 투쟁"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 제공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가 발생한 지 23일 되는 16일부터 아리셀 중대재해 희생자 가족들이 화성시청 합동분향소에서 직접 추모객을 맞기로 했다고 대책위가 전했다.

대책위는 “그간 희생자 가족들은 사과와 사죄는 뒷전이고 ‘개별 합의’에만 열을 올리는 가해자 에스코넥·아리셀과 맞서, 피해자 가족의 권리는 등한시하며 직계와 친족을 차별해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관계 당국에 맞서 싸우느라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에 몰려 있는 상황이었다”고 유족들의 상태를 설명했다.

희생자 가족들은 ‘추모와 다짐’의 발길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합동분향소를 찾는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협의회’와 ‘대책위’의 활동과 계획을 전하고 함께 해 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 직접 추모객을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희생자 가족은 추모객을 맞이하기 위해 분향소에 모셔진 가족의 위패와 영정을 보자마자 다시 오열을 시작해 이를 바라보던 시민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일도 있었다는 전언이다.

사측, '백지 위임장' 들고와 "사인하라"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가리기 위한 ‘꼼수’
참사 이후 많은 언론 보도와 증언을 통해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주된 원인이 불법 파견과 위장 도급에 있음이 드러났다고 대책위는 지적했다.

대책위는 “하지만 시간이 경과 하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에스코넥·아리셀의 은폐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어제 경기도가 희생자 가족을 상대로 한 설명회에서‘피해자 유품 인수 의향 조사’라는 종이쪽지를 들고 와 참사 희생자의 유품을 전달받기 원하면 서명을 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이 과정에서 사측이 희생자들의 소속을 ‘메이셀’로 표기하며 진상규명 과정에서 불법 파견과 위장 도급을 가리기 위한 근거 자료로 삼기 위한 꼼수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사측이 유족들에게 위임장을 들이밀며 피해자 가족의 동의를 구하려 했다. 그러나 사측이 내민 위임장에는‘무엇을 위해 누구에게 위임하는지’도 적혀 있지 않았다. 그간 가해자인 에스코넥·아리셀이 보인 행태를 보면 이 위임장이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쓰일지 모른다”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더해 “가해자인 에스코넥·아리셀은 이런 꼼수를 고민할 시간이 있으면, 지난 1차 교섭 에서 합의한 대로 가해자측 실무자를 조속히 선정하고 2차 교섭에 나서라”고 일갈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 제공

위험의 이주화, 비정규직 함께 투쟁
추모와 다짐의 시민추모제 계속

‘추모와 다짐’의 시민추모제가 계속되고 있다. 정의당 당원인 윤종환 노동자는 “부천의 작은 공장에서 일을 하며 다치는 것이 일상다반사인데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한순간에 사라진 소식에 마음이 무너졌다. 다시 중대재해처벌법을 생각한다. 사용자와 정부여당은 처벌을 중심에 놓고 얘기하지만 사용자가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것이다. 이번 참사도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했으면 벌어지지 않았을 참사”라며 애통해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활동가들도 추모제를 찾았다. 김선종 공동소집권자는“6년 전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님과 투쟁을 함께 하며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근데 지금 다시 청년 노동자들의 죽음 앞에 서있다.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중단시켜야 한다.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현장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다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앞장 서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고 김재형 님의 유가족인 김신복(고모) 님도 발언하면서“우리 조카가 한국에 온지 목숨을 빼앗겼다. 이런 지경에 내몰린 피해자 가족의 심경을 어루만지기는커녕 그나마 유지되던 지원마저 끊는 한국의 행정에 분노한다. 이 심경을 어디 가서 말을 할 수도 없다. 이국땅에 일하러 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주검으로 돌아온 이 참담한 심경을 헤아려 달라”며 눈물을 보였다.

조연주 기자 nojojogirl@gmail.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